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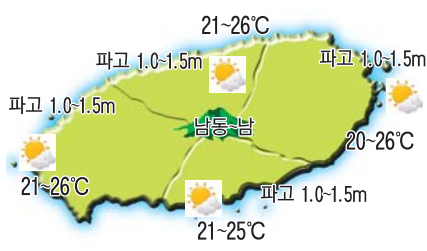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14일 월요일 음 7월 27일 (4월)

기상정보

구름 많음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21℃, 낮 최고 기온은 25~26℃의 분포를 보이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the day: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성산, 고산, 서귀포, 오후.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해돋이 06:17, 해질 18:42, 달뜨기 02:13, 달짐 16:49, 안개 08:12, 안개 21:12, 간조 03:06, 간조 14:29.

Table with 7-day weather forecast: 내일, 구름 많음, 21/26℃, 모레, 흐리고 비, 22/26℃.

Table with UV index and visibility: 식중독지수 위험, 자외선지수 높음.

월드뉴스

빙하시대 멸종한 '동굴곰' 미라 발견

연구팀 "장기 온전하게 보존"



북동연방대가 공개한 동굴곰의 이빨 모습.

러시아 야쿠츠크 북동연방대 연구팀은 북극해에 있는 노보시비르스크 제도 대 라스키 섬에서 손목 목동들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동굴곰 미라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12일 보도했다.

야쿠츠크에 있는 매머드 박물관 연구실의 수석연구원인 막심 체프라스코프는 "동굴곰의 정확한 나이를 파악하기 위해 방사성 탄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 동굴곰 미라의 내부 장기는 온전한 상태로 보존돼 있었다. 그전까지는 동굴곰의 두개골과 뼈만 발견됐다는 점에서 이번 발견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동굴곰은 매머드가 살았던 빙하시대 유라시아에 널리 분포했다가 멸종한 불곰의 친척 뻘로 알려져 있다. 한편, 최근 시베리아에서 일 년 내내 인 상태로 남아있는 영구 동토층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녹으면서 과거 땅속에 묻혔던 강아지와 늑대와 같은 동물들의 미라가 속속 발견되고 있다.

연구팀은 다양한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 발견된 동굴곰의 사체를 연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대략 동굴곰이 2만2000년~3만9500년 전에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려면 과학적 측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대표인쇄·편집인 이용곤, 편집국장 조상운, 제주 대표신문, 인터넷 서비스, 기사제보, 1989년 4월 22일 창간.

백록담



고대로

경제산업부장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공직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최고의 덕목은 청렴이라고 했다.

'목민심서'는 그가 18년동안 유배생활을 하면서 집필한 저서로 목민관, 즉 수령이 지켜야할 지침을 밝히면서 관리들의 포악한 정치를 비판한 책이다.

특히 고위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이나 다른 직업인보다 높은 윤리규범과 청렴결백이 요구된다.

청렴과 거리면 도정 권력자들의 삶

지난 1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편법 영역수주', '부실용역'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는 김상협 제주연구원장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고영권 제주부지사에게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녹색성장 환경비서관과 기획관 등을 역임한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은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 이사장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녹색성장 환경비서관과 기획관 등을 역임한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은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 이사장 출신이다.

특히 고위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이나 다른 직업인보다 높은 윤리규범과 청렴결백이 요구된다.

지원 받아 용역을 수행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제주도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피하기 위해 제주테크노파크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자신들을 정적적 제안 '싱크탱크'로 소개하고 있지만 이들이 수행한 일부 용역의 표절률은 최대 47%에 달했다.

고영권 제주부지사도 일반인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자 윤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지가 상승을 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기 위해 매입했던 비축토지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 지난 2019년엔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 해안에 국내 유명가수 BTS 슈가

형 카페 '공백' 주변 농지 등 토지를 집중 매입했다. '공백'이 제주의 명소로 부각될 경우 엄청난 부동산 가격상승이 기대되는 곳이다.

목민심서 '서문'에 이런 말이 있다. "수령은 본인이 되고 싶어서 되면 안되고, 많은 백성이 천거해서 돼야 한다."

제주도 공무원들은 오늘날 '청렴하게 살아가자'는 기고문을 언론사에 부탁하고 있는데 제주도정의 핵심 권력자들이 살아온 삶은 청렴과 거리가 먼 저자거리 시정잡배 수준인 것 같아 아쉽다.

열린마당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도서관



강은정 한라도서관 사서

2020년 올해의 독보적인 키워드는 바로 '코로나19'다. 장기화·일상화된 코로나도 두려운 존재지만, '포스트 코로나' 역시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문제다.

기존 도서관 운영방식으로는 코로나시대를 헤쳐 나갈 수 없다. 예전처럼 책읽기 선생님이나 용기종기 모인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각종 프로그램은 사실상 운영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름다운 제주를 위하여



오희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비행기를 타고 타지역에서 제주도로 들어올때면 기내 '아름다운 제주에 도착했습니다'라는 멘트가 방송되던 때가 있었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거창한 타이틀을 얻기전부터 제주도는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곳이었다.

아름다운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도민의 생활과 삶에 에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동안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과 전세계인에게 많은 휴식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주의 자연환경이 몇년사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8년 4월 영국의 BBC 방송에서는 페루의 마추픽추와 함께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으로 뿔뿔이 날고 있는 세계관광지 5곳 중 하나로 제주도를 꼽았다.

이제는 누구나, 언제든지 쉬고 싶을 때 방편해 자연 속에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보물섬인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관리해 물려줘야 할 것이다.

그러한 방법 중의 한가지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dvertisement for Cocoly fertilizer: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100% 수용성 비료, 다양한 효능 설명.

Advertisement for Cocoly fertilizer: 농업인이면 이 광고를 보셔야합니다, 감귤·만감 하우스 농가, 키워농가, 양배추·양파·브로콜리 농가, 마늘농가, 감자농가, 제품소개.